



國家的課題 解決에 共同努力

會長 金 允 基

親愛하는 代議員여러분!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12回 定期總會를 맞아 尊敬하는 崔亨燮科學技術處長官 그리고 科學技術界 先輩, 元老여러분과 產業經濟界 來賓을 한자리에 모시고 定期總會를 開會하게 됨을 無上의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 科學技術界가 總和團合되어 오직 科學技術의 研鑽과 技術革新에 精進할 수 있었던 것은 政府當局의 格別하신 配慮와 學會·協會會員여러분들의 協調해 주신 聲援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產業經濟團體의 支援이 學會學術活動에 큰힘이 되어 주었기 이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科總은 지난해 몇가지 뜻깊은 事業을 成就하여 그 기쁨을 나눈바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宿願이던 科學技術會館의 竣工이라 할것입니다. 둘째는 科學技術用語 第1集의 發刊이 5年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밖에 國內外科學技術者綜合學術發表會를在美科協과 共同主催하여 많은 成果를 견우었으며 새마을技術指導事例發表會를 開催한바 있고 특히 1科學技術者 1마을 技術結緣事業이 200個마을로 擴充되었으며 今年에는 300個마을로 擴張할 計劃입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誌도 計劃대로 發刊되어 科學技術人의 對話의 廣場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傘下學會 支援事業이 未洽했었던 것을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本是 이 事業은 制限된 豫算의 範疇를 넘어설 수 없는 隘路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多幸히, 政府에서 科學財團設立이 計劃되고 있어 한결 展望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科總은 더욱 內實을 期하고 本然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142個 學會·協會·團體의 有機的인 協同과 構造的인 集大成을 이루어 國家的課題 解決에 共同努力을 펴나갈 것입니다.

今般 第4次經濟開發事業의 早期成就의 關鍵이 되는 技術主導型 頭腦產業育成에 對處하기爲해 本聯合會內에 該當分科委員會를 活用 衆智를 모아 長短期對策을 摸索해 나갈 것입니다.

今年에도 國內外科學技術者綜合學術發表會를 가질 것이며, 우리와 隣接한 日本科學技術界와 紐帶를 맺고 科學技術의 交流를 增進해 갈것입니다.

代議員여러분!

오늘의 議案審議에 協助하여 주시고 이를 誠實히 遂行할 수 있도록 指導鞭達을 베풀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科學技術界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및 學會團體의 繁榮을 祈願하며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이 같이하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77年 2月 28日

致辭

潛在研究能力的 組織化

科學技術分野에 밝은 氣風세우자

科學技術處長官 崔 亨 燮

親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12回 定期總會에서 本人이 致辭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그간의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宿願事業이었던 科學技術會館을 建立하여 學會와 協會를 收容하게 되었고 142科學技術團體가 有機的인 學術活動 交流와 技術情報를 疏通하는 核心體로서 發展하고 있음은 科學技術界 元老님들과 會長團 任職員여러분들의 勞苦에 依한 것임은 勿論 8萬餘 科學技術人の 畧은 努力과 奉仕의 協同團結의 結晶이기에 本人은 이자리를 빌어 그 勞苦를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祖國近代化의 새로운 轉機를 다짐하는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첫해 입니다. 이 期間中 우리는 技術主導型 頭腦産業의 育成을 通하여 國際社會競爭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位置를 確保하고 善鬪해 나가려면 優先 우리의 科學技術이 自立開發되어야 하며 그間 우리 科學技術人들이 蓄積해온 技術開發能力을 土臺로 科學技術이 經濟發展을 先導하는 體制의 變化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지금 우리는 創造的인 研究開發을 主軸으로 技術集約的 頭腦産業을 이 땅위에 定着시켜 第4次計劃期間中 期必코 重化學工業 立國을 成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하여 産業技術의 革新과 開發을 爲해서는 企業의 參與와 分擔의 幅을 더 넓히고 大學에 散在되어 있는 潛在研究能力을 組織化하여 技術革新에 拍車를 加하여 나가야 겠습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開拓期 十餘年の 劬한 難關을 克服하고 이제 發展的 第2週期에 들어왔으므로 科總은 總和機能을 더욱 鞏固히 하여 科學技術界를 先導하는 蠱蜂의 使命을 다해 주실 것과 研究開發못지 않게 庶政刷新에도 協調하여 科學技術分野에서도 밝은 氣風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會長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하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無窮한 發展과 여러분의 健勝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77年 2月 28日

第12回 科總 定期總會 盛了

頭腦產業 育成위해 長短期對策 模索키로

科學技術界를 先導하는 햇불 使命다짐

第12回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定期總會 가 지난 2月 28日 科學技術會館 9층 大講堂에서 傘下學會 團體 및 內外貴賓 120餘名이 모인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金允基會長은 開會辭를 통해(權寧大 副會長代讀) 우리 科學技術界가 總和團合 되어 科學技術의 研鑽과 技術革新에 精進할 수 있었던 것은 政府當局의 配慮와 學會 協會 여러분들의 聲援에 힘입은 것이며, 더욱이 產業經濟團體의 支援 또한 學術活動에 큰힘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科總이 지난해 成就事業인 科學技術會館竣工, 科學技術用語第1集發刊, 國內外科學技術者綜合會術大會, 새마을技術指導事例發表會, 1科學技術者 1마을技術結緣事業의 200箇 마을 擴充등을 들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인 산하學會支援事業이 未洽했음을 지적 制限된 豫算의 範疇를 넘어설 수 없는 隘路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리고 이것은 科學財團設立이 곧 실현될 것으로보아 學術研究活動에 展望이 밝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科總은 第4次經濟開發事業 成就의 關鍵이 되는 技術主導型頭腦產業育成에 對應하기 위해 該當分科委員會를 活用 衆智를 모아 長短期對策을 摸索해 나가겠다고 했다.

崔亨燮科技處長官은 致辭(李應善기획관리실장代讀)를 통해 科總이 科學技術會館을 建立하여 學會와 協會를 收容하게 된점과, 142개단체의

核心體로서 發展하고 있음은 科學技術界의 元老 및 會長團, 任職員, 8萬餘科學技術人의 悤은 努力과 奉仕의 協同團結의 結晶임을 致賀했다.

崔長官은 第4次計劃의 첫해인 올해는 技術主導型頭腦產業의 育成을 通해 國際社會競爭에 나서야할 것임으로 優先우리의 科學技術이 自立開發되어야하며, 그간 蓄積해온 技術開發能力을 土臺로 科學技術이 經濟發展을 先導하는 體制의 變化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科總이 開拓十餘年の 난관을 克服하고, 이제 發展의 第2週期에 들어왔음으로 總和機能을 더욱 鞏固히하여 科學技術界를 先導하는 햇불의 使命을 다해 줄것을 부탁했다.

이날 總會는 會順에따라 76年度事業인, 學術活動, 새마을技術奉仕團活動, 科學과 技術誌發刊事業, 科學技術 30年史편찬자료수집(선구자누음), 科學技術用語發刊事業, 會館建立 등의 實績報告가 있었고 趙誠虎監事의 監查報告가 있는 다음 決算報告가 있었는데 76年度 事業報告와 決算報告를 만장일치로 接受시켰다.

그리고 77年事業目標로 多樣한 學術大會周旋, 研究學術論文의 質의 向上, 在外科學技術者의 紐帶強化, 弘報活動촉진, 產學協同을 위한 協力(VTR), 結緣마을擴張(300마을) 등의 事業計劃을 無修正 通過시켰다.

이날 總會가 끝난다음, 安保영화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된 「조국의 맥박」 영화가 60분간 상영되었다.